

# 낙태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

사회복지 윤리와 철학

2024.11.12

1918016 김형진  
2118043 이세영  
2218005 권예지  
2310011 박인혜



# CONTENTS

## 발표 목차

### 서론

- ① 낙태의 개념 및 유형
- ② 낙태죄의 개념
- ③ 낙태에 대한 인식

### 본론

- ①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실태
- ② 낙태 관련 법안 및 문제점
- ③ 낙태 찬반론
- ④ 낙태죄 찬반론

### 결론

- ① 사례연구 및 토론

## 낙태의 개념

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.

## 낙태의 유형

### 약물낙태

기준: 임신 7주까지 가능

방법: 미페프리스톤 알약 복용, 24시간 후 미스프로스톨 투여

### 기계 낙태

1. 팽창 및 흡인에 의한 낙태

- 자궁 경부 점진적인 확장

2. 확장 및 배출에 의한 낙태

- 지궁 확장 시 수술도구 사용해 태아 제거

# 낙태죄의 개념

불법적인 임신중절은 사회윤리규범의 보호 및 법인 보호적 기능(객체, 태아의 생명권)에 위반되어 1953년 제저 시부터 제 269조 제270조 "낙태죄"로 규정하고 있다.

## 낙태에 대한 인식

인공임신중절(낙태)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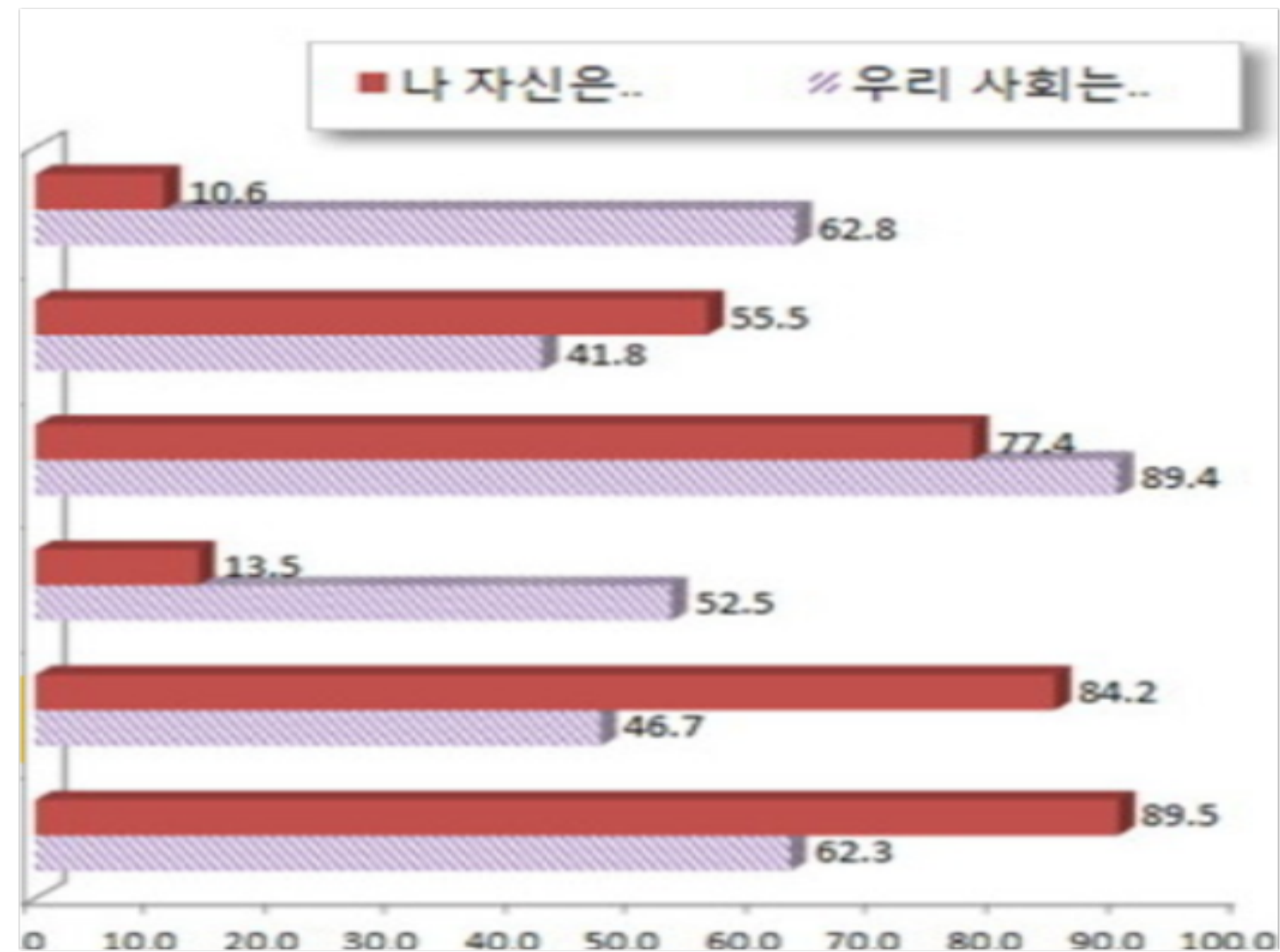
낙태는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.

낙태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.

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.

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 권리라고 생각한다.

낙태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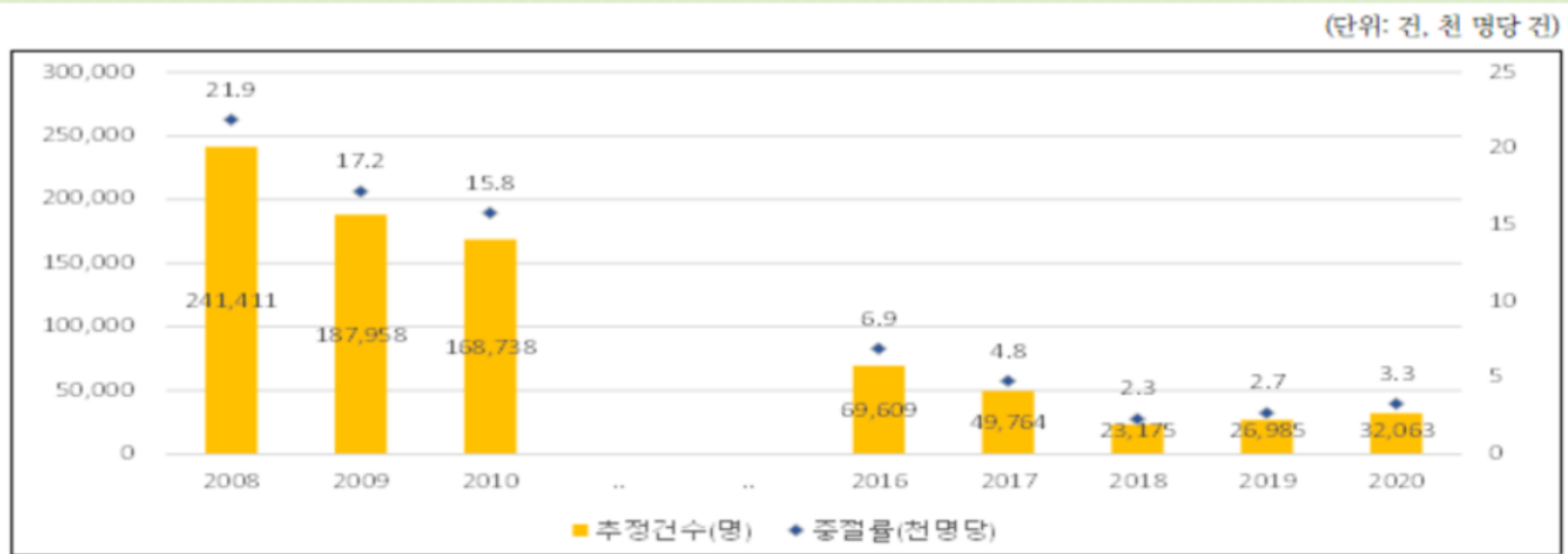




##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실태



#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실태



\*자료 출처: 1) 2008~2010년 수치: 손명세 외. (2011).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)

2) 2016~2017년 수치: 이소영 외. (2018).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. 세종: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3) 2018~2020년 수치: 본 연구에서 실시한 「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.

## 국가별 낙태 정책

### 뉴질랜드

- 낙태죄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삭제
- 임신 20주 안에 임신 중지 여부 결정 가능 법안 통과
- 임신 20주 후에는 2명이 의사 낙태 동의 필수
- 낙태를 범죄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룸
- 무면허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

### 스페인

- 임신 14주차까지 임산부의 자발적 임신 중절 허용
- 임신 22주차까지 정신 건강을 이유로 하는 중절 허용
- 그 밖의 경우 낙태 집도자는 징역 1~3년 및 자격정지 부과

## 관련 영상 시청





# 낙태 찬반론

## 찬성

### 여성의 자기 결정권

- 임신 이후 삶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여성
-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로 여성의 건강 안전 위협

**VS**

## 반대

### 태아의 생명권 존중

-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
-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태아가 제3자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을 때 적용

# 베이비박스 찬반론

## 찬성

### 생명 보호

- 위험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아동을 구조할 수 있어 아동의 생명 보호에 기여함.

**VS**

## 반대

### 익명성으로 책임 회피

-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익명성을 제공해 유동 유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.

# 낙태죄 찬반론

## 찬성

### 생명 보호

- **생명권 보호**  
태아는 독립적인 생명체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윤리다.
- **사회 윤리 유지**  
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 된다. 이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 약화로 이어진다.

**VS**

## 반대

### 여성의 자기결정권

- **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**  
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, 정신, 경제적으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. 여성은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.
- **여성 안전 보장**  
낙태를 불법화하면 불법 시술이 증가한다. 이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


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**THANK YOU**

김형진

이세영

권예지

박인혜